‘무주다움’으로 승부… K관광수도 · 자연특별시 무주 각인

무주만의 ‘역사 · 문화’, ‘반딧불이’, ‘태권도’, ‘산골’이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토대로 ‘무주다움’을 완성하고 활기 넘치는 삶터와 일터, 쉼터로 가꿔 ‘군민 행복’을 이루겠다며 민선 8기로 향했던 무주군이 어느덧 출범 3주년을 맞았다.

무주군은 5천억 예산 시대를 열며 전국 10대 관광매력도시 대열에 섰으며 100세 이상 어르신 비율 전국 1위,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 비율 전국 6위 도시로도 이름을 알렸다.

▶ 황인홍 군수의 포부

무주 성장시키고 군민행복 키울 것

“사람의 성향 · 태도 · 참여, 도시의 미래 결정
생활인구 증대 · 지역경쟁력 강화 등에 힘쓸 것”

“도시는 시민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모습이 결정됩니다. 이들의 성향과 태도, 참여가 도시의 미래와 이미지를 결정한다는 얘깁니다. 같은 맥락에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와 같은 말을 언급하며 “그 만족을 이끌어내는 역할은 행정에서 한다. 무주군이 지역성장과 군민 행복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황 군수는 “앞으로 생활 인구 증대, 기후변화 대응, 지역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쓸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무주가 가진 자연 · 문화 자원 확충과 콘텐츠 육성, 관광 및 정주 환경을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광생활인구 증대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태권도 등), 청년 세대를 타깃으로 한 관계 인구 유치, △귀농 · 귀촌 선도 지역으로 도약, △정주 여건 개선, △교통망 확충 등이 기반이 돼 지속 가능한 무주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관광’을 기반으로 생활 인구 증대

무주군은 고유한 문화콘텐츠와 관광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웠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1~3분기 생활 인구 현황에서 보면 무주군의 체류 인구는 월평균 22만3,000여명으로 거주 인구의 9.4배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무주군은 관광 생활 인구를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군 관광 종합개발 계획(2023~2032)을 기반으로 6개 읍면 특화 관광상품들과 마케팅 전략을 체계화했으며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속 가능한 무주 관광을 구현할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 길이 조성돼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됐으며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사업,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활성화사업,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수성대 주변 관광 개발사업,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등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글로벌 태권시티 도약, 스포츠 강군 확인

글로벌 태권시티를 지향하며 태권도와 태권도원(2022 웰니스 관광지, 2023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에 힘썼다.

2022년부터 3년간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를 개최(120개국, 3,000여명 참가)하고 2026 세계태권도 그랑프리와 2027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를 유치했다.

이외에도 24개 국내외 태권도대회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3만7,000여명 참가)했으며 올 연말까지 10여개 대회 및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태권도뿐만 아니라 마라톤, 자전거, 탁구, 족구, 검도,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전국 · 도 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등도 유치(2022~2025, 71개)해 스포츠 강군으로서 인지도를 높인 한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태권시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글로벌 태권도인재양성센터 설립 추진, 태권마을(2018~2025)과 진입도로 조성 사업(2018~2026)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권도 어드벤처는 시설 증축 및 보강을 마치고 연간 체험관광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운영 중이다.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속 스마트팜으로 농업경쟁력 확보

무주군은 이상 기후와 농업인 고령화, 청년농 감소로 위협받고 있는 농업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현재 경영실습장을 조성 중(2022~2025)으로 11월 준공되는 대로 참여 농업인과 귀농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고랭지 기후와 환경을 활용한 1읍면 1특화작목 육성(무주읍 복숭아, 무풍면 옥수수, 설천면 포도, 적상면 복분자, 안성면 천마, 부남면 고구마)에 매진하고 있으며 틈새 작목으로 여름딸기와 흑수박을 시범 재배 중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무주 · 구천동농협, 2022~2025년, 5,864농가 2만6,289명 중개)운영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2022~2025, 네팔 · 필리핀 등 221명 고용, 6,146농가 1만9,673명 중개)을 통해 일손 부족 해소에 주력했으며 농업인 월급제, 농민 공익수당 확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및 반딧불 사이버장터 운영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힘썼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인증 및 검사비 지원, 유기질 비료 등 자재 지원 등),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 구축 등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됐다.

▲주민복지 · 교육 만족도 높여 인구 유출 막는 데 주력

주민들의 복지,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썼다. 인구 유입에 앞서 인구 유출을 막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 것.

무주읍 당산리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과 무주공원 내 놀이터를 조성했으며 청소년 수련관 동아리 활동 지원도 확대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진학장학금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초 · 중 · 고등학생으로 확대했으며 반디장학금도 대학교 1~3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확대했다.

이외 외국어 능력 향상 지원(온라인 화상영어, 학교 원어민 영어 교사), 글로벌 역사 · 문화 탐방 지원, 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022~2025, 255개 6,598명)에 주력했다. 2024년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총사업비 454억원)에 선정돼 태권도 특수목적고 설립(209억원) 기반을 마련했다.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지원, 장애인 통합돌봄, 어르신 이 · 미용 · 목욕비 지원 등 섬김 복지에 정성을 쏟고 있으며 주거(노후 환경 정비, 집수리 등) 및 교통(행복 콜버스, 행복 콜택시 등), 에너지 복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지원) 실현에 주력했다.

▲무주상상반디숲, 복합문화거점시설로 자리매김

지난해 5월 개관한 무주군 최초의 복합문화시설인 무주상상반디숲은 이용객이 지난 1년간 10만여 명에 이르는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형설지공도서관(이용자 7만4,897명)은 4만 3천여 권의 장서와 연령별 맞춤 열람실,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서와 학습, 소통이 공존하는 문화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남감대여실 등을 갖춘 가족센터(이용자 1만9,667명)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생활문화센터(이용자 1만657명)는 주민들의 창작과 동아리, 교육 등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외 △전북대학교와 함께 무주군의 인문자원을 발굴,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인문도시 사업(2024~2027)과 △최북미술관 일대를 문화관광 거점시설로 조성하는 무주반디문화창작소 조성 사업(2024~2025), △전통공예공방에 무주그림책놀이 창작틔움터(2025~2026)를 조성하는 사업 등은 무주군민을 위한 생활문화 인프라가 되는 동시에 관광객 및 귀촌인들을 손짓하는 또 하나의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관광 활성화 정책 기반 경쟁력 강화
태권도 기반 스포츠 마케팅 힘써와
스마트팜 조성 통해 농업 현실 극복
주민 복지 · 교육 만족도 향상 노력
상상반디숲, 복합문화거점시설로